

서양 복식

참고문헌: 서양복식문화사, 예지각, 2008

근대 복식-낭만주의 양식의 복식

구분	특징
남자	실루엣 - 허리가 가늘수록 매력적이었으므로 몸체 바로 위에 ()로 허리를 조였다. - 가는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 가슴과 힙에 패드를 넣어 과장하였다. - 이를 ()라 하였다.
	() - ()은 몸통 부분이 꼭 맞았으며, 앞은 허리선부터 뒤옆선까지 비스듬하게 재단되었고, 뒤아랫부분은 직선으로 잘렸다.
	() - 루이 18세 시대 : ()가 유행 - 루이 필리프시대 : 허리가 꼭 맞고, 스커트 부분이 플레이졌으나 길이가 짧아진 르댕고트를 입음 - 1837년 : 새로운 형태의 탑 코트 등장. 박스 실루엣으로 솔 칼라가 달림
	() - ()이 평상복이나 이브닝에 모두 착용하는 하의로 정착되었다. - 밑단이 종(bell)형으로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형이 모두 착용되었다.
여자	실루엣 - x자형 실루엣 부활. 신 르네상스 스타일이라고도 한다.
	() - 보디스가 몸에 맞게 되고, 허리를 조이기 위한 코르셋이 중요해 졌다.
	() - 소매를 부풀려 실루엣의 균형을 맞추고, 어깨를 강조하였다. - 1820년경에 ()가 등장하였다가 1830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

	() - 1830년대에 폭이 넓어지고 페티코트가 일반화되었다.
	() - ()가 사용되었는데 외투라기 보다는 ()로서 많이 사용되었다. - ()가 있었다.
	() - 1830년대에 활동에 편리한 바지가 등장하였다.

근대 복식-크리놀린 스타일의 복식-남자복식

명칭	특징
재킷	- 궁정의 프락 대신 착용하는 것으로 종래의 ()과 ()의 혼합형이다.
베스통	- 길이는 허리 밑까지 달았고, 밑단은 직선으로 재단되었다.
하의	- 남자복 하의로 정착이 된 ()은 1850년대부터 바지통이 () 길이는 구두의 힐까지 닿도록 ()
슈미즈	- ()에 착용하는 것이다. - ()은 가슴에 화려한 레이스나 프릴로 장식 - ()은 단순한 디자인에 앞을 단추로 여밈
외투	- 외투로 다양한 형태의 ()가 유행하였다. - 주로 더블 블레스트이며 라펠 칼라가 달리고 슬릿이 양쪽에 있었다.

크리놀린 스타일의 복식

명칭	특징
	여자의 의상: 이 시기는 가는 허리와 넓은 스커트 폭이 상징이었다.
()	-가는 허리를 조이기 위한 ()은 이 시기에 이르러 구성방법이 발달하였다. -()나 ()을 넣어 만든 코르셋의 불편함을 없애고 단지 직물로만 만든 코르셋이 등장했다.
()	-일반적으로 목선이 높은 ()에 작은 칼라가 달렸고 긴 소매 였다.
()	-소매의 장식은 스커트를 장식한 ()와 조화를 이루었다.
()	-스커트의 둘레는 점차 (), 크리놀린을 착용한후 ()를 입어 더욱 부풀렸다.
()	-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움직임과 의상에서부터 남성과 동등한 옷차림을 원하고 남성의 전용물로만 여겨진 바지의 착용을 주장하였다.
()	-1980년대에 원피스 형태로 ()이라 불리는 프린세스 드레스가 등장 하였다. -투피스 형태의 ()과()가 등장하였고 테일러드된 남성복과 비슷한 형태였다.
()	-여성의 외투는 크리놀린으로 인해 스커트 크기가 거대해지고 어깨에 두르는 큰()이나 ()가 유행되었다.